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천국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연일 매서운 추위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많이 움츠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움츠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기도회에 빈 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주일예배를 비롯해서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집회도 이젠과 같지 않습니다. 기지개를 활활 펴고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예배시작 15분 전에는 예배실에 착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하고, 각 부서의 집회와 모임도 정해진 시간에 마쳐야 합니다. 경건한 예식만으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제된 예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영과 진리’로 가득찬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15분

- 1 15분, 십자가 교회로 향한다
- 2 15분, 십자가 도심을 다닌다
- 3 15분, 십자가 본당에 앉는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자연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 성령의 탄식

후 4:17). 바울은 두 세계를 설명한다.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고, 장차 올 세상의 특징은 영광이다. 탄식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삶은 장차 올 영광의 극치에 연결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탄식을 설명한다. 먼저는 자연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성된다.

자연의 탄식 (롬 8:19~22)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 3:17). 그러나 자연에게도 소망은 있다. 인간 때문에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후로 우주 만물에게도 새 세계를 위한 약속이 주어졌다(렘 3:12~13).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제 21:1).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여 주셨다(사 65:17~18).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새 세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롬 8:19~22). 인류의 구원은 또한 우주만물의 구속이 될 것이다(골 3:3~4). 인류와 우주만물은 떼어 놓을 수 없도록 하나로 묶여져 있다. 부활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만물을 만드실 것이다(고전 15:40, 49~51). 그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새 세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탄식 (롬 8:23~25) 모든 피조물은 탄식한다(롬 8:22). 그리스도인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양자 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고 이미 아들로서 보장을 받아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한” 그 완성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롬 8:23).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외쳤다(롬 7:24).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이다. 오직 죽을 몸이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고전 15:54).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감추어져 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고후 5:7; 히 11:1). 우리의 진정한 집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올 생명의 세계에 있다(롬 8:24~25).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안다(고후 5:6).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며 몸이 구속받을 것, 즉 앞으로 입할 새 세계의 삶을 기다린다.

성령의 탄식 (롬 8:26~27) 옛 세계와 새 세계,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있는 긴장은 이 땅 위에 사는 은총의 자녀들의 마르가 되고 또한 탄식과 소망을 불러낸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롬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말 없는 탄식의 기도를 아신다. 이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롬 8:27). 우리가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몸에 그 처소를 정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중에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신다. 아멘.

ALL THINGS NEW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

(Revelation 21:5)

Everyone likes new things! People buy new things all the time, which is why the economy keeps moving. Even antique collectors buy new things. Computers, cell phones, and televisions appear to be the hottest moving items these days. The bad news is that no matter what we buy, it eventually becomes old. The good news is that the Lord God makes everlasting new things. The Bible begins with God creating a new paradise, and the Bible ends with God creating an eternal new paradise. Let's look at some of the new things God has in store for His children.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God makes you new things. He makes you into His child,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Jn. 1:12). The difference between receiving Christ and getting religion is that religion offers you a set of laws to keep, but Christ offers you new life and the power to live it. When sinners come to faith in Christ the old things pass away,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God makes you into a new creation, and the things you loved before lose their appeal. The grace of God forgives sin, and believers get a new record. Receiving Christ brings you a new nature, a new hope, and a new heavenly home,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1~3). Believers receive a new understanding of spiritual things. All these beautiful new things begin at your new birth,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an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Jn. 3:3~5).

When Jesus comes back, God will make new things. Living believers will never die,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 Thes. 4:16~17). All believers will get new bodies, just like the resurrected Jesu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1 Jn. 3:2). Right now, all our bodies are deteriorating. As old age approaches, most of us will leave this life in much the same way as we entered with wrinkled skin, no teeth, and little to no hair. When our Lord returns, we will get new bodies in an instant,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1 Cor. 15:51~53).

When the universe is rebuilt, God will make everything new,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made ready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Rev. 21:1~2). Believers will have a new dwelling place for eternity. People will enjoy a new intimacy with God! Today's Bible verse says,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Rev. 21:5). God is going to eliminate all the sorrows that sin brought to this earth. There will be no more crying and no more death.

My dear friends, have you been made new by receiving Christ? Are you ready and looking forward to Christ's return? Does the anticipation of all the new things God promised to give you fill you with great joy? Please find your joy and comfort in Jesus Christ. Amen. 

모든 것이 새롭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21:5)



김성판 목사

모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 것을 사고, 그것이 곧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골동품 수집가들조차 새 것을 삽니다. 특히 컴퓨터, 핸드폰, TV는 요즘 가장 빠르게 바뀌는 아이템들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든지 얼마 못 가서 결국 구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낙원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낙원을 재창조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종교를 갖는 것의 차이는 종교는 지켜야 할 일련의 법칙을 제공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전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죄를 사해 주시며 신자들은 새로운 기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늘의 본향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신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것을 만드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모든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현재의 모든 육체는 사멸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대부분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부도 주글주글해지고 이빨도 없고 머리카락도 거의 빠진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

새 우주를 만드실 때 새것이 될 것이다

우주가 재창조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신자들은 영원한 새 처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계 21:5).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가져다 준 모든 슬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는 일과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7

빌라도의 법정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말한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의 행적을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오히려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은 15장에서 빌라도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공판복음서와 비슷하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18~19장에 걸쳐 빌라도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막 15:2).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요 18:33~37). 바라바를 놓아주는 장면도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였다(막 15:6,11,15; 요 18:39~40, 19:15~16).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관장(브라이도리온, 막 15:16)을 세 차례나 오가며 예수님의 무죄함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요 18:28,33, 19:9). 예수님과도 진지하게 대화하였다. 어떻게 하면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생각은 다음의 말 속에 충분히 스며들어 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요 18:38).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 19:4).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유대지역의 안정을 간직할 원했던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요 19:12)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곧바로 포기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해결을 위해서 애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빌라도와 비슷하다. 문제는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단지 문제해결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빌라도의 법정처럼 우리도 교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영화를 위해서 분주하지 않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빌라도보다 더 약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면 나를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4~26). 아멘.

*매주 필요성박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10. 1. 13)

1.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요 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12)
3. 나는 쉼이다(요 10:7~10)

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25~26)

지금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 자연재해들 때문에 무척이나 시끄럽다.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또는 패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말씀의 초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부활과 생명인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personality)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개성을 지니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개성은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요 10:30). 예수님이 지닌 개성은 보통 사람의 개성과 명백히 다르다. 보통 사람은 이해관계, 유익, 성공여부 등을 위해서 개성을 가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개성을 종교지도자들은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요 10:31,33).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셨다(요 11:3~6,14).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을 때문이었

다(요 11:15).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개성을 보게 된다(요 11:8,12~13).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뒤, 우리는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개성을 보게 된다(요 11:21,32).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즉 자신의 개성대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개성과 예수님의 개성은 확연히 다르다. 예수님은 모든 개성 중 가장 위대한 개성을 지니고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 오라비마 다시 살아나리라”(요 11:23).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자신의 개성대로 받아 대답하였다(요 11:24).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살전 4:16~17). 예수님은 모든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더 깊게 하신다**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욱 깊게(extend) 하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6).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인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에 비할 약속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결국은 세상 안에서 유효할 뿐 영원까지 확장할 수 없다(시 90:10).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영원까지 확장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개성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성이 온전히 영원을 믿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뿐 아니라 더 확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요 11:26). 그런데 우리의 개성이 믿음마저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시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잘못된 믿음, 우리의 개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자. 이때 우리는 영원을 간직하며 부활과 생명인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살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진부가 되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이 좋아요

해의 단기선교의 열매로 복음의 오지에 현자인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다. 몽골에는 '참빛하늘나라교회'가 있다.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이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왔다. 생기 발랄한 21살의 사랑자야이다. 몽골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랑자야는 전북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으며, 귀국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 더욱 알고자 현재 선교원회가 특별히 마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 언제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참빛하늘나라교회에 다니고 있던 대학의 선배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점점 좋아졌어요.

☞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도움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세요.

☞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으니까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더욱 알게 되었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어서 기뻐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 기도제목이 있단가요?

지금은 엄마와 남동생만 교회에 다녀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월 말에 출국 예정인 그녀는 요즘 너무 분주하다.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동문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통역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술술 아니, 진동한다.



내 증인이 되라

그 날까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어진 환경이 원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준비했다. 막상 준비하면서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 낯설지 않은 선교지가 오히려 반가웠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단 한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 드리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자 거듭난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 전했다. 마음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미래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길 원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더욱 즐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함을 받아 가까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잘 것 없고 연약한 나를 들어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세록(집사, 12교구)

이번이 세 번째 선교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답답하고 겉는 것을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마다 회개하며 전도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방울 흘리셨는데 이까짓 땅 몇 방울을 흘렸다고 짜증내는 게으른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있는 우상들이 아궁이에 불태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원이 해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없이 거부하는 영혼을 볼 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복음화되는 그 날까지 기도하고 선교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임순록(집사, 1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월 18일(화) - 1월 26일(화)	19교구 1팀	이수애	1월 22일(금) - 1월 30일(토)	청년1부 1팀	정인선
1월 21일(목) - 1월 29일(금)	7교구 1팀	송한현	1월 22일(금) - 1월 30일(토)	2교구 1팀	홍순길

간동과 나들

폭설보다 더 큰 은혜가 내리다

- ♡ 공동체헌원이 재미있었어요. 수련회 최고였어요. (문영진)
- ♡ 고등부에서의 첫 수련회였는데 부흥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김은진)
- ♡ 김성관 목사님이 오셔서 색소폰 불러주시거할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양혜원)
- ♡ 학생회 프로그램 할 때 좋았어요. 기도도 못하고 준비도 부족했지만, 고등부 지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꼈고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초·반별 모임 시간을 통해 친교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좋았어요. (고수현)
- ♡ 방 구분 없이 지나가 더 좋았어요. 대신 부흥회는 기도시간이 제 생각보다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김한나)



엄청난 눈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도원에서 2박 3일이라는 일정을 계획했었지만, 갑자기 내린 눈으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일정대로 직장과 공동체 훈련, 말씀과 찬양과 부흥회를 하며 첫째 날의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초·반별 모임 시간을 가졌고, 김성관 위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색소폰 연주와 말씀으로 고등부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셨다. 그 후 수련회 마지막 부흥회와 예배를 드린 후 수련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갑작스런 폭설로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느꼈다.



김성관(교사, 고등부)

1박 2일의 많은 은혜

처음 겨울수련회의 날짜가 주보에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수련회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2박 3일 기도원에서의 수련회는 너무도 큰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간중간 나갈 수 있다고 해도 감히 시도해보고자 하지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수련회 부조장이 되었고 제 자리에 대한 단순한 책임감으로만 수련회를 가기로 생각했던 저에게 교사기도회 때 고등부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제 생각이 참 짝임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녁때는 수련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일을 매번 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수련회가 정말로 얼마 안남는 시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폭설 때문에 1박 2일 교회에서의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신 주님. 여러 가지 특강 그리고 학생회의 친교시간 등 모두 정말 좋았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흥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첫날 부흥회는 저녁 늦게 했었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부흥회가 낮 시간으로 옮겨져 저에게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부흥회 기도시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기도 시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박인주 선생님, 그리고 꼭두새벽부터 저회를 위해 직접 아침식사를 만든 여러 고등부 선생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완전한 믿음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수련회 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약조건 속에서라도 무사히 끝난 이번 고등부 수련회,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문정(고등부)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음을 전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도록 권면하시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도전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2010년의 시작을 바로 그 다니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12장의 다니엘서의 말씀 중,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한 다니엘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지만 그 외에 가득 담겨져 있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랬기에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며 목사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이 풀이될 때마다 주님께서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맘 속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말씀을 이루셨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할 비밀들을 내 안에 펼쳐 보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게 진실로 그것을 믿는지, 나의 자유의지를 드러 진정 주님을 좇

는 자가 될 수 있는나고 인격적으로 여주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보며, 믿음을 강조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도 있고, 반면 행함을 강조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전자의 믿음은 있으나 후자의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죄의된 본성으로 인해 너무나 익숙해져 깨닫지조차 못하는 마음도 들었다.

이런 저런 마음으로 보면 그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청년부 예배에서 말씀 읽기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주님께서는 이사가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너를 불뉘리라." 그렇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인 것이었다. 이 연약함도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넘쳐 주실 것을 믿으며 더 이상 것이 아닌 밥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성경(청년1부)

청지기칼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은 세상을 얻은 듯한 기쁨으로 천천교회에서 결혼한 지, 올해 1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니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뜻도 맞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결혼생활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슴을 생각하면 감사와 눈물뿐이다.

작년 여름, 5년 만에 선교를 다녀와서 그 모든 것은 더욱더 확실해졌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맞으며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영혼들에게 복을 전하기를 기뻐하셔서 지금까지 훈련하시며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마치 필뚝거리는 물고기들을 가득 담아 놓고 나에게 빨리 건져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던지기만 하면 되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을 직접 보게 하시고, 나의 남은 삶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다음 선교 갈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매주 장년1부 교사를 통해 온통 죄 밖에 없는 우리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풍성한 복음만이 있게 하시고, 회원들과 나누며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하다.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것도, 높아지며 영광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네, 주님.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이 실천되어야 할 때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변하는 저를 지도 믿을 수가 없으니,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권정옥(임사, 장년1부)

♡ 새 가족 을 환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3	이정선	21	청년1부	김여현(20)	70	박관숙	7	장년1부	오준현(9)
54	심성아	21	청년2부	전지희(21)	71	이정민	7	중등부	오준현(9)
55	조윤희	23	청년2부	최경하(17)	72	이정현	7	초등2부	오준현(9)
56	신준호	23	초등2부	최경하(17)	73	박은숙	5	청년2부	노은영(23)
57	신준영	23	초등1부	최경하(17)	74	강영애	20	장년2부	김만수(20)
58	임영빈	23	장년3부	안재자(6)	75	송영애	11	장년2부	
59	김지현	16	평년1부	배정애(1)	76	이지원	5	장년1부	
60	정현진	17	대학부	정금숙(17)	77	김영지	5	고등부	
61	박윤근	23	청년1부	신정애(20)	78	김영민	5	중등부	
62	안희석	11	청년2부	김성혜(12)	79	윤미혜	9	대학부	김영애(2)
63	구문섭	1	장년2부	구원섭(1)	80	박지혜	9	청년1부	한만교(24)
64	강연주	1	청년2부		81	이미랑	8	고등부	이기현(8)
65	최홍호	10	장년1부		82	이종한	19	중등부	박미지(16)
66	박재정	10	장년1부		83	송해나	15	대학부	김예실(18)
67	전설희	2	청년1부		84	김동국	13	장년2부	박홍규(13)
68	조명희	13	장년2부	정인선(12)	85	김이연	1	청년1부	
69	김영덕	13	고등부	정인선(12)	86	김민주	21	청년1부	김명희(16)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신년의 기도

빛 되신 주님 우리를 비추어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고 침울하는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십시오

온통 어둠뿐인 마음에 빛의 줄 흐르며
당신의 빛이 무너져 버린 어둠 가운데로
이제는 불꽃의 영혼을 불어 살리소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덧없고 덧없음을 깨닫고 돌이켜
덜추게 하고 당면한 나에게 하고서

그리스도의 단편의 인자와
십자가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과
삶을 이끌어 하고

몸을 낳아 믿음의 기기는 것보다
소망을 위해 인내하는 것보다
오직 사랑과 함께 하고서

겉에야에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함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고서

그리스도의 단편의 삶이 오는 것과
주 예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고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말씀과 감사하게 하고서

내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미움과 악의와 악행을 행하는
나를 부인하게 하고서

죽음보다 더 막대한
고통보다 더 천지 기는
적들갈라 고등 위에

천국보다 더 화려한
영생보다 더 긴
당신의 위로와 사랑이 있음

말씀을 알아가면서
오만 자들을 알아가면서
기독교로 진리케 하옵소서

예수 양친은 믿지키며
구원지키며 생명이시며
나의 믿어드립니다

글·서전/ 황정민(장년1부)

1월 총현 기도의 창

DOI: 10.1002/for

예바다부	1월 23일(토)	제2교육관 1층
------	-----------	----------

새벽기도회 (1/18~1/24)

예배 담당 (1/20~1/24)예배 및 집회 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

Copyright © 2010 총회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